

## 平氣年에 관한 研究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윤창열\*

### A Study on Normal Qi Years

Yun Chang-yeol\*

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eajeon University.

**Objectives** : Deciding whether a year will be a Normal Qi Year is an important task within the study of Five Periods. Normal Qi Year, a period of peace and calmness, comes when a given year's elements are neither excessive nor deficient. There is, however, no unified definition for Normal Qi Year. This paper is written to propose a definition that could serve as such.

**Methods** : *Somunyukgihyunjumileo*, various masters' opinions, and conventional Chinese scholars' claims were studied based on *Hwnagjenaegyong* to produce this paper.

**Results** : Within The Year of Sehoi(歲會年), only four years are Normal Qi Years and the other four years are not Normal Qi Years. The six years of Jehwa(齊化) are all Normal Qi Years because excessive elements are suppressed. The six years of Donghwa are all Normal Qi Years because deficient elements are bolstered. The years of Dongsehoi(同歲會) are all Normal Qi Years. All of the six elemental deficient years of the Year of Sunhwa(順化年), when the energy of Heaven emanates elements, are all Normal Qi Years.

**Conclusions** : Not counting the overlapping Normal Qi Years during a periodical circle of 60 years, there is a total of 23 Normal Qi Years: the years of Eulchuk(乙丑), Jeongmyo(丁卯), Mujin(戊辰), Gyeonggo(庚午), Shinmi(辛未), Gyeyu(癸酉), Eulyu(乙酉), Jeonghe(丁亥), Gichuk(己丑), Gyeongin(庚寅), Shimnyo(辛卯), Gyesa(癸巳), Eulmi(乙未), Musul(戊戌), Gyeongja(庚子), Shinchuk(辛丑), Gyemyo(癸卯), Eulmyo(乙卯), Jeongsa(丁巳), Gimi(己未), Gyeongshin(庚申), Shinyu(辛酉), and Gyehye(癸亥).

**Key Words** : Normal Qi Years(平氣年), Peace and Calmness(和平), *Hwnagjenaegyong*(黃帝內經), *Somunyukgihyunjumileo*(素問六氣玄珠密語), Dongsehoi(同歲會)

\* Corresponding Author : Yun Chang-yeol. 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eajeon University. Yongun-dong, Dong-gu, Daejeon.  
Tel : +82-42-280-2601

Email : yooney@dju.ac.kr  
Received(19 July 2016), Revised(17 August 2016),  
Accepted(18 August 2016)

## 1. 序 論

五行의 變化는 中道의인 작용을 하는 경우와 그 힘이 너무 강한 경우와 또는 너무 不及한 경우의 3가지로 구별된다. 韓東錫은 이를 『宇宙變化的原理』에서 五行의 三五分紀 또는 五行의 十五分紀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五行이 三變하는 三五分紀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平氣年을 정하는 것은 運氣學說에서 중요한 내용이다.

평기에 대해 『素問六節藏象論』에서는 “無過者也”라 하여 태과하지도 않고 不及하지도 않은 해라고 하였고, 『素問六元正紀大論』에서는 “運非有餘하며 非不足이니 是謂正歲니 其至當其時也(운이 유여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것으로 이를 正歲 즉 기후가 和平한 해라고 하니 時에 맞추어 그 기운이 도래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素問五常政大論』에서는 “生而勿殺하며 長而勿罰하며 化而勿制하며 收而勿害하며 藏而勿抑이니 是謂平氣라(生하는 기운을 收氣가 함부로 殺하지 않고, 長하는 기운을 藏氣가 함부로 罰하지 않고, 化하는 기운을 生氣가 함부로 制하지 않고, 收하는 기운을 長氣가 함부로 害하지 않고, 藏하는 기운을 化氣가 함부로 抑하지 않으니 이를 평기라고 이릅니다.)”라고 하고 동편에서 평기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木曰敷和요 火曰升明이요 土曰備化요 金曰審平이요 水曰靜順이라”고 하였다.

평기의 해에는 太過 不及이 없어 기후변화가 和平하여 편벽되지 아니하며 勝氣와 復氣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災害와 질병도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나타나더라도 심하지 않게 된다. 또 평기의 해에는 때에 맞추어, 기후가 이르게 되는데 이를 『素問六微旨大論』에서 “至而至者和(時에 맞추어 氣가 이르는 것으로 和平之氣가 된다)”고 하였다.

新校正에서는 “按컨대 王注太過不及할새 各紀年辰이어늘 此平木運에 注不紀年辰者는 平氣之歲는 不可以定紀也라 或者 欲補注하야 云丁巳丁亥壬寅壬申歲者는 是未達也라(살피건대 왕빙이 太過년과 不及년에 注를 달면서 각각 해당되는 해를 기술했는데 이곳 木平氣年인 敷和에 대해 注를 달면서 해당되는 해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평기년은 어느 해라고 지정하여 기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혹자가 注를 보충

하여 木평기해는 丁巳, 丁亥, 壬寅, 壬申年이라고 한 것은 잘 알지 못한 것이다.)”<sup>1)</sup>라 하였고 任應秋는 “平氣는 미리 예측할 수 없고 반드시 그 해의 辰(甲子)과 일진, 시간을 가지고 법칙에 따라 推算해야만 비로소 결정할 수 있다.”<sup>2)</sup>고 하였다. 이는 평기의 추산에 月干德符, 日干德符, 時干德符를 중시해야 한다고 말한 듯하다.

그렇다면 정말로 平氣의 해는 미리 예측할 수 없는가? 十干이 五運으로 변화할 때 陽干은 太過가 되고 陰干은 不及이 되니 언뜻 보면 평기의 해는 나올 수가 없다. 그러나 內經에서 기본적으로 歲會年이 平氣가 되고 運太過而被抑하고 運不及而得助하여 平氣年이 됨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素問六氣玄珠密語』에서 또 干德符가 平氣年이 됨을 서술하였다. 그렇지만 역대로 平氣의 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너무도 紛紛하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지금까지도 정설이 없고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논문으로 중국에서는 陶有寬의 試談平氣的預測<sup>3)</sup>, 趙輝의 平氣之年推算方法及其意義<sup>4)</sup>, 刑玉瑞의 從平氣推算看運氣學說的科學性問題<sup>5)</sup> 등이 있고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된 논문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筆者는 과거 平氣를 論했던 주요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하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論議의 장을 열어 보고자 한다.

## 2. 平氣年과 관련된 諸說 및 분석

### 1) 歲會平氣

- 1) 尹暢烈 외 2人. 현토완역 황제내경소문 왕빙주(下). 大田. 주민출판사. 2004. p.182.
- 2) 任應秋 著. 任廷革 整理. 任應秋運氣學說六講.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4. p.49.
- 3) 陶有寬. 試談平氣的預測. 安徽中醫學院學報. 1984. 4. pp.18-20.
- 4) 趙輝. 平氣之年推算方法及其意義. 安徽中醫學院學報. 2000. 19(6). pp.4-6.
- 5) 刑玉瑞. 從平氣推算看運氣學說的科學性問題. 遼寧中醫學院. 2009. 36(11). pp.1892-1894.

『素問六微旨大論』에서 “木運이 臨卯하고 火運이 臨午하고 土運이 臨四季하고 金運이 臨酉하고, 水運이 臨子하면 所謂歲會니 氣之平也니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丁卯, 戊午, 甲辰, 甲戌, 己丑, 己未, 乙酉, 丙子の 8년은 歲運과 年支가 同氣이기 때문에 歲會라고 하고 平氣년이 된다고 말한 것이다. 劉溫舒는 이중 地支가 子午卯酉의 四正方에 위치하는 丁卯, 戊午, 乙酉, 丙子の 4년을 四直承歲라 하였고 土用에 해당하는 辰戌丑未가 甲己土運과 相合하는 甲辰, 甲戌, 己丑, 己未의 4년을 通論承歲라고 구별하고 있다<sup>6)</sup>.

내경에서 이 8년을 평기년이라고 분명히 기술했지만 후세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太過被抑 不及得助의 논리를 중시하여 歲會平氣의 조문을 따로 만들지도 않고 丁卯는 同屬平氣條에서, 己丑, 己未, 乙酉는 同化平氣條에서 평기라고 논할 뿐 戊午, 丙子, 甲辰, 甲戌은 평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심지어 楊力은 丁卯를 제외한 나머지 7년이 모두 平氣가 아니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sup>7)</sup>.

“戊午年은 太乙天符年으로 戊火태과, 방위오행(歲支五行)으로 午火, 司天의 午火의 三火가 同氣로 火氣가 크게 勝하기 때문에 태과년이 된다. 甲辰, 甲戌年은 甲土태과, 辰戌이 방위오행으로 모두 土, 在泉이 土로 三土가 相臨하여 그 氣가 偏亢하여 평기년이 될 수 없다. 己丑, 己未年은 太乙天符年으로 대운의 土氣가 不及하지만 丑未가 방위오행으로 土가 되고 土가 司天하여 三氣가 모두 土가 되어 土氣가 偏亢하여 평기가 될 수 없다. 乙酉年은 金運이 不及하지만 酉가 방위오행과 變化오행에서 모두 金이 되어 3개의 氣가 金인 太乙天符年에 속하며 司天이 비록 在泉인 火의 제약을 받지만 在泉의 火氣가 運氣同化에 맞설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에 평기년이 되지 못한다. 丙子年은 丙水태과하고 子가 방위오행으로 水가 되어 水氣가 偏盛하여 평기가 될 수 없다.『素問六微旨大論』에서 언급한 8년에 포함

된 세회의 運氣同化年을 분석해본 결과 丁卯年만 겨우 평기년에 포함시킬 수 있고 나머지 운기동화년의 절대 다수가 평기년에 속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六微旨大論』에서 ‘歲會 氣之平也’라고 한 것은 성립되기 어렵다.”

위의 내용을 읽다보면 대단히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일반적으로 內經의 주장은 金科玉條처럼 여겨져 학문의 기준이 되어 왔다. 그렇지만 위의 주장에서 戊午年, 甲辰·甲戌年 등의 주장은 읽어보면 대단히 합리적이다. 과연 어느 것을 따라야 할 것인가. 筆者도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먼저 평기로 볼 수 있는 이유로는 『素問六微旨大論』에서 “非其位則邪오 當其位則正이니 邪則變甚하고 正則微라(子午卯酉의 四正位와 辰戌丑未의 四維位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邪氣이고 四正位와 四維位에 있는 것은 正氣이니 사기가 병을 일으키면 변화가 많고 정기가 병을 일으키는 것은 경미합니다.)”하였다. 子午卯酉의 四正位는 正方에 있으니 中道를 행하고 辰戌丑未는 비록 四維位에 있으나 中央에서 나간 출장소이고 중앙의 土德을 兼有하고 있어 君子의 德을 行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歲運과 年支의 五行이 일치하는 세회 8년은 평기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素問六氣玄珠密語』에서는 甲辰, 甲戌, 丙子, 戊午의 4년은 太過運에 배속하였고 己丑, 己未, 乙酉, 丁卯의 4년만 평기년에 배속하였는데 筆者도 일단 이것을 따르고자 한다. 己丑, 己未, 乙酉는 뒤의 同化平氣에도 속하고 丁卯는 同屬平氣에 속한다.

## 2) 齊化平氣

齊化平氣는 歲運이 太過한대 司天之氣의 克制를 받아 歲運이 齊化되어 平氣의 氣化現象이 출현하는 것을 말한다. 齊化는 『類經圖翼·五運太少齊化逆順圖解』에서 “陽年曰五太니 因其氣旺有餘也라 …… 太過則已勝하야 反齊勝己者之化라(甲丙戊庚壬의 陽年을 5太라고 부르니 氣가 왕성해서 유여하기 때문이다 …… 태과하면 내 기운이 왕성하여 도리어 나를 이기는 것의 변화를 가지런하게 한다.)”<sup>8)</sup>라 하여 본

6) 劉溫舒 著, 尹暢烈 譯, 懸吐注解素問入式運氣論奧, 大田, 韓醫學研究院, 2007, pp.382-383.

7) 楊力, 中醫運氣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5, pp.48-49.

래 내가 왕성하여 나를 이기는 것이 작용하지 못하고 나의 기운이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張介賓은 또한 齊化를 설명하면서 戊運에 水司天을 예를 들어 설명하여<sup>8)</sup> 楊力을 爲始한 대부분의 중국 학자들이 司天之氣가 태과한 中運을 克制하여 平氣가 되는 것을 齊化平氣라 일컫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한다.

예를 들어 戊辰, 戊戌年은 歲運이 火運太過이고 辰戌太陽寒水司天하니 水克火하여 太過한 火運이 변해서 火運平氣가 된다. 이를 『素問五常政大論』에서는 “上羽하면 與正微同이라” 하였고 『素問六元正紀大論』의 太陽之政에서 “戊辰 戊戌 同正微”라 하였다. 庚寅, 庚申, 庚子, 庚午年은 세운이 金運태과이고 寅申少陽相火와 子午少陰君火가 司天하니 火克金하여 태과한 金運이 변하여 金運平氣가 된다. 이를 『素問五常政大論』에서는 “上微하면 與正商同이라” 하였고 『素問六元正紀大論』의 少陽之政에서 “庚寅 庚申 同正商”, 少陰之政에서 “庚子 庚午 同正商”이라 하였다.

齊化平氣는 戊辰, 戊戌, 庚寅, 庚申, 庚子, 庚午의 6년이 있고 運太過而被抑하여 平氣가 된 것이다. 楊力은 이 해들은 전형적인 평기년이 됨으로 正平氣年 또는 眞平氣年이라 부르고 있다. 『素問六氣玄珠密語』에서도 天罰有餘라 하여 이 6년을 모두 평기로 보고 있다. 筆者도 위의 의견에 동의한다.

### 3) 同化平氣

歲運이 不及한대 마침 같은 五行의 司天之氣를 만나 同化되던 不及했던 運이 司天之氣의 도움을 받아 平氣가 된다. 예를 들어 丁巳 丁亥年은 세운은 본래 木運이 不及하나 巳亥厥陰風木이 司天하여 不及한 木運이 같은 기운의 도움을 얻어 平氣가 된다. 이를 『素問五常政大論』에서는 “上角하면 與正角同이라” 하였고 『素問六元正紀大論』의 厥陰之政에서 “同正角, 丁巳, 丁亥”라 하였다.

己丑, 己未年은 세운이 본래 土運不及이나 丑未太陰濕土가 司天하여 不及한 土運이 같은 기운의 도움을 얻어 평기가 된다. 이를 『素問五常政大論』에서

는 “上宮하면 與正宮同이라” 하였고 『素問六元正紀大論』의 太陰之政에서 “同正宮 己丑 己未”라 하였다.

乙卯, 乙酉年은 세운이 본래 金運不及이나 卯酉陽明燥金이 司天하여 不及한 金運이 같은 기운의 도움을 얻어 평기가 된다. 이를 『素問五常政大論』에서는 “上商하면 與正商同이라” 하였고 『素問六元正紀大論』의 陽明之政에서 “同正商 乙卯 乙酉”라 하였다. 同化平氣年은 丁巳, 丁亥, 己丑, 己未, 乙卯, 乙酉의 6년이 있는데 모두 不及한 天符年으로 運不及而得助에 속한다. 이 중 己丑, 己未, 乙酉는 세희평기와 중복된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6년을 모두 평기년으로 보고 있지만 楊力은 앞의 歲會平氣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己丑, 己未, 乙酉를 평기년으로 보지 않았고 丁亥年도 제외하여<sup>10)</sup> 丁巳年과 乙卯年만 평기년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이 여섯해는 내경의 두편에서 모두 平氣年이라 하였고 이치적으로 보더라도 합리적임으로 모두 平氣年으로 보아야 한다. 『素問六氣玄珠密語』에서도 이 6년을 모두 平氣年으로 보고 있다. 筆者의 의견도 위와 다르지 않다.

### 4) 同歲會平氣

中運과 在泉之氣의 오행속성이 같을 때 陽年을 同天符라고 하고 陰年을 同歲會라고 부른다. 이에 대해 『素問六元正紀大論』에서 “癸巳癸亥 少微 下加少陽, 辛丑辛未 少羽 下加太陽, 癸卯癸酉 少微 下加少陰 如是者三”이라 하였다. 이는 癸巳, 癸亥年은 火運不及의 해인데 少陽相火가 在泉하여 中運과 同氣를 이루고, 辛丑 辛未年은 水運不及의 해인데 太陽寒水가 在泉하여 同氣를 이루고, 癸卯 癸酉年은 火運不及의 해인데 少陰君火가 在泉하여 中運과 同氣를 이룬다. 이처럼 不及한 中運이 在泉之氣와 同氣를 이루는 해를 同歲會라 하는데 癸巳, 癸亥, 癸卯, 癸酉, 辛丑, 辛未의 6년이 있다. 이 여섯해는 『素問六氣玄珠密語』에서는 모두 平氣의 해로 보고 있지만, 이후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를 평기에서 제

8)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p.47.

9)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p.47.

10) 楊力, 中醫運氣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5, p.47.

외하고 있다. 다만 楊力은 이 중 癸亥 辛丑 辛未의 3년만 평기년으로 보고 癸巳 癸卯 癸酉의 3년은 평기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sup>11)</sup>.

“癸亥年은 대운은 火이고 司天之氣는 木이며 歲支는 水이다. 하나는 木生火하고 하나는 水克火하여 양자가 서로 깎아 낸다. 대운이 비록 不及한 火이지만 在泉이 同化하여 도움을 줌으로 평기년이 될 수 있다. 辛丑, 辛未年이 비록 운기가 동화하는 同歲會年이지만 사천과 歲支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태과할 수 없고 또한 운기가 동화하기 때문에 不及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평기년이 된다.”

筆者는 不及한 中運이 司天之氣의 도움을 받아 모두 平氣가 되었듯이 (天符 12年 中 中運이 不及한 天符 6년이 同化平氣가 된 것을 말한다) 同歲會 6년도 모두 平氣年이 된다고 사료된다. 이에 대해 혹자는 在泉之氣는 후반년만을 지배하는데 어떻게 1년 전체를 주관하는 평기년으로 잡을 수 있는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五常政大論』을 보면 在泉之氣의 영향에 의해 식물의 一年의 氣味가 결정되고 一年동안의 五蟲의 育, 不育이 결정됨으로 在泉之氣는 一年동안의 땅기운 전체를 지배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癸巳年은 火不及이나 歲支의 巳가 火가 되어 돕고 木司天하여 天氣生運의 順化年을 이루며 在泉의 火가 도와줌으로 平氣年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同歲會平氣도 運不及而得助하여 平氣가 된 것이다.

### 5) 順化平氣

天符, 順化, 天刑, 小逆, 不和를 五個歲氣라고 부른다. 이 중 司天之氣가 中運을 생하는 해를 順化年이라 부르며 12년이 있다. 司天木이 生火하는 해는 癸巳, 癸亥年이고 司天火가 生土하는 해는 甲子, 甲午, 甲寅, 甲申年이고 司天土가 生金하는 해는 乙丑, 乙未年이고 司天金이 生水하는 해는 辛卯, 辛酉年이고 司天水가 生木하는 해는 壬辰, 壬戌年이다. 이

중 陽年이 甲子, 甲午, 甲寅, 甲申, 壬辰, 壬戌의 6년이고 陰年이 癸巳, 癸亥, 乙丑, 乙未, 辛卯, 辛酉의 6년이 된다.

『醫宗金鑑』의 「運氣要訣」에서 “中運辛卯陰年은 水運不及이나 則爲相生하니 俱爲不及得助라 凡遇此類는 皆爲正化平氣之年也라(신묘년은 陰年으로 中運이 水運不及年이나 陽明燥金이 司天하여 金生水하니 모두 不及得助가 된다. 무릇 이러한 종류를 만나는 해는 모두 기후가 빠르게 변화하는 평기년이 된다.)<sup>12)</sup>. 위의 내용은 中運이 不及한 順化 6年은 司天之氣의 도움을 받아 平氣의 해가 된다는 것이다.

筆者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중 癸巳, 癸亥年은 同歲會와 중복이 되니 평기년이 틀림없고 乙丑, 乙未年은 丑未가 歲支가 土이고 司天之氣도 土여서 二土生金함으로 평기년이 되고, 辛酉年은 酉의 歲支와 司天之氣가 모두 金이라 二金生水하며, 辛卯年은 司天生運하고 中運克泉(辛水가 在泉之火를 克)함으로 不及 順化 6年은 모두 평기년이 된다고 사료된다. 順化平氣도 不及而得助하여 平氣가 된 것이다.

### 6) 干德符平氣

『素問六氣玄珠密語』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每年交司于年前大寒日할새 假令丁年交司之日에 遇日朔爲壬日이면 丁得壬하니 名曰干德符也라. 符者는 合也니 便爲平氣也라. 若過此一日이면 縱遇라도 皆不相濟也라. 若交司之時에 遇時直符見壬이라도 亦然이오 過此면 亦不相濟也라. 其餘皆類也니 卽已逢甲하며 辛遇丙하며 癸逢戊하며 丁逢庚하면 皆爲干德符也라 非交司日時하고 除此日時면 不相濟也라 又于不及歲中에 逢月干이라도 皆得符合也니 不相濟也라 [이곳의 不은 衍文인 듯 하다](매년 새해가 되기 전 大寒日에 운기가 교대할 때 가령 丁年의 交司日에 일진이 壬日이라면 丁과 壬이 合하니 간덕부라고 한다. 符는 합치된다는 것이니 평기의 해가 된다. 만약 대한일이 지나면 비록 만나더라도 모두 相濟하지 못한다. 만약 交司하는 시간에 만나는 時가 직접 壬

11) 楊力. 中醫運氣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5. pp.47-48.

12) 吳謙 著. 四診運氣心法要訣.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12. p.65.

을 만나 符合하더라도 또한 그러하고 이를 지나면 또 相濟하지 못한다. 그 나머지도 모두 이와 같으니 己가 甲을 만나고 辛이 丙을 만나고 癸가 戊를 만나고 乙이 庚을 만나면 모두 간덕부가 된다. 交司하는 日과 時가 아니면 相濟하지 못한다. 또 不及한 해의 月干을 만나더라도 모두 합치됨을 얻으니 相濟하게 된다.”<sup>13)</sup>

干은 天干이고 德은 五行의 特性을 가리키니 天干의 五行 속성이 서로 부합되고 합치된다는 뜻이다. 干德符平氣는 歲運이 不及한 해에 당해년의 年干이 交運하는 月干, 日干 그리고 時干의 天干과 化氣五行(夫婦五行)이 서로 符合하면 同氣의 도움을 받아서 平氣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를 月, 日, 時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月干德符

乙丁己辛癸의 不及之年에 월건이 庚이 되면 乙合庚하여 金不及했던 乙年이 평기년이 되고, 壬이 되면 丁合壬하여 木不及했던 丁年이 평기년이 되고, 甲이 되면 己合甲하여 土不及했던 己年이 평기년이 되고, 丙이 되면 辛合丙하여 水不及했던 辛年이 평기년이 되고, 戊가 되면 癸合戊하여 火不及했던 戊年이 평기년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새해 정월의 월건으로 분석해 보면 『素問六氣玄珠密語』에서는 月建에 대해 大寒의 절기가 들어 있는 12월의 월건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해의 월건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만약 운기가 交司하는 12월의 월건으로 계산해 본다면 12월의 월건은 丑이 되고 丑은 陰支여서 陰干이 배합됨으로 合德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正月로 계산해보면 乙庚之年은 戊寅頭함으로 乙庚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丁壬之年은 壬寅頭함으로 丁壬함이 이루어지고, 甲己之年은 丙寅頭함으로 己甲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丙辛之年은 庚寅頭함으로 辛丙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戊癸之年은 甲寅頭함으로 癸戊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丁丑, 丁卯,

丁巳, 丁未, 丁酉, 丁亥의 6年은 이론상으로는 平氣年이 된다. 평기년에 대한 평가는 干德符의 마지막에서 설명 하고자 한다.

### (2) 日干德符

乙丁己辛癸年の 해에 初運이 交司하는 大寒日의 일진이 甲丙戊庚壬이 되어 乙年에 庚日이 오거나, 丁年에 壬日이 오거나, 己年에 甲日이 오거나, 辛年에 丙日이 오거나 癸年에 戊日이 오면 平氣年이 된다는 것이다. 王玉川은 1864년부터 1923년까지 60년간 大寒日이 日干과 年干이 符合하여 日干德符를 이룬 것이 겨우 4년만 있었다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다<sup>14)</sup>.

### (3) 時干德符

不及之年에 初運이 교대하는 大寒日의 交運時刻의 天干이 不及한 年干과 합치되면 平氣年이 된다는 것이다. 『類經圖翼』의 各年五運交司時日의 내용을 가지고 初運交司日의 時刻를 기록하면 다음과 같다<sup>15)</sup>.

申子辰年 初運 大寒日 寅初刻起  
巳酉丑年 初運 大寒日 巳初刻起  
寅午戌年 初運 大寒日 申初刻起  
亥卯未年 初運 大寒日 亥初刻起

60갑자의 배합원리는 陽干은 陽支와 결합하고 陰干은 陰支와 배합된다. 不及한 陰干이 當該年이 되는 해는 巳酉丑年과 亥卯未年이다 그런데 이 두해의 初運交司時는 巳와 亥로 그날의 일진이 무엇이 되던지 陰干만이 앞에 붙을 수가 있어 不及한 해에 대해서 相濟作用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時干德符는 현실적으로 존재 할 수가 없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干德符의 이론을 처음 제시한 사람이 현실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을

13) 劉溫舒原 著. 張立平 校注. 素問運氣論奧. 北京. 學苑出版社. 2008. p.223.

14) 刑玉瑞. 從平氣推算看運氣學說的科學性問題. 遼寧中醫學院. 2009. 36(11). p.1893.

15)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pp.45-46.

도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론에만 의거하여 이 학설을 주장한 것이라 사료된다.

月干德符를 분석해 보면 6년 중 丁卯는 세회평기, 동속평기이고 丁亥, 丁巳는 동화평기여서 이미 평기년에 속한다. 丁丑, 丁未는 歲支와 司天의 土에 의해 土侮木을 당하나 在泉의 水가 生木하여 약간의 평온함을 유지하며, 丁酉年은 木不及에 歲支와 司天의 金에 의해 金克木을 당하고 在泉의 火도 火侮木을 하여 평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정월의 월건과 습하면 正月은 相濟를 받을 수 있으나 다른 달에는 영향이 미약하리라 사료된다.

日干德符도 평기에 참고 할 수는 있으나 일년 모두 평기를 유지한다고는 믿기 어렵다. 楊力은 “60년 가운데 이런 기회는 매우 적기 때문에 평기의 가치가 높지 않다.”<sup>16)</sup>고 하여 간덕부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運氣攝要』에서는 “干德符의 平氣年은 기후가 일반적으로 결코 平穩하지 않음으로 후인들이 대부분 채용하지 않는다”<sup>17)</sup>라고 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筆者의 입장에서는 干德符는 참고는 하되 너무 엄밀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 그 이유는 단지 그 해의 월건, 일진, 시각이 습德한다고 하여 일년동안 기운을 相濟하여 평기가 된다고 믿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7) 類歲會假平氣(同屬平氣)

『素問入式運氣論奧』의 論歲會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sup>18)</sup>

“外有四年하니 壬寅皆木이오 庚申皆金이니 是二陽年이오 癸巳皆火오 辛亥皆水니 是二陰年이니 亦是 運與年辰相會로되 而不爲歲會者는 謂不當四年正中之 令故也라. 除二陽年則 癸巳 辛亥 二陰年은 雖不名歲會나 亦上下五行이 相佐하니 皆爲平氣之歲라(세회 8년 외에 運과 歲支의 五行이 일치하는 해가 4년이

있으니 壬은 木運, 寅은 寅卯木으로 모두 木이오, 庚은 金運 申은 申酉金으로 모두 金이 되니 陽年이 2개이다. 癸는 火運, 巳는 巳午火니 모두 火요, 辛은 水運 亥는 亥子水니 모두 水가 되니 陰年이 2개이다. 또한 運과 年辰이 서로 일치하되 세회가 되지 않는 것은 이 4년은 正中之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르기 때문이다. 2개의 陽年을 제외하고 癸巳, 辛亥 2개의 陰年은 비록 세회라고 하지 않으나 또한 上下의 五行이 서로 도와주니 모두 평기의 해가 된다)

일반적으로 壬寅, 庚申, 癸巳, 辛亥는 運의 五行과 歲支의 五行이 일치하여 歲會가 될 것 같지만 寅申巳亥가 四相位에 위치하여 類歲會라 부르고 歲會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癸巳, 辛亥의 2해를 평기에 포함시킨 기록은 『素問六氣玄珠密語』五運元通紀篇 第一에 처음 나온다. 그러나 同書의 陰虧平正紀篇 第九에서는 辛亥를 不及運에 포함시켰고 癸巳는 同歲會로서 평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楊力은 이 중 辛亥, 庚申의 2년만 평기년이 된다고 하였는데 庚申年은 앞에서 말한 齊化平氣에 속한다.

筆者의 견해로는 癸巳는 同歲會平氣, 順化平氣가 되고 庚申은 齊化平氣가 되지만 壬寅, 辛亥는 평기가 될 수 없다고 사료된다. 壬寅은 평기가 아닌 것이 확실하고 辛亥도 亥의 歲支가 水라 不及한 辛水를 돕는 측면도 있지만 厥陰風木이 되어 辛水를泄氣하고 運生天氣의 小逆관계를 이루므로 平氣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類歲會平氣는 僞平氣年이고 假平氣年이라 생각된다. 이 뜻은 類歲會로 平氣를 추산한다는 주장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의미이다. 또 어떤 사람은 運과 歲支의 五行이 같아서 平氣가 되는 것을 同屬平氣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丁卯年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9)</sup>. 丁卯年은 歲會에 속하므로 평기년에 해당된다.

### 8) 兼化假平氣

兼化는 陰年 不及의 해에는 내가 약하게 되고 내

16) 楊力. 中醫運氣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5. p.50.

17) 閻鈞天. 運氣攝要.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5. p.68.

18) 劉溫舒 著, 尹暢烈 譯. 懸吐注解素問入式運氣論奧. 大田. 韓醫學研究院. 2007. pp.384-385.

19) 毛小妹, 白貴敦. 醫易時空學.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07. p.80.

가 약하게 되면 나를 이기는 것이 와서 나의 氣化를 兼하여 강한 것이 弱한 것을 겸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平氣로 보고 기술한 책은 刑玉瑞의 『運氣學說의 研究與評述』과 毛小妹, 白貴敦의 『醫易時空學』이다. 『運氣學說의 研究與評述』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20)</sup>

“世運이 不及할 때에 마침 이기지 못하는 司天之氣를 만나게 되면 司天之氣가 歲運之氣를 乘하여 그 政事를 廢하고 自立하여 이로부터 司天之氣가 化生하는 기운이 平氣를 이루게 된다. 예를 들어 己巳, 己亥年은 세운이 土運不及이고 巳亥厥陰風木이 司天하니 風木이 乘土하여 土運의 氣化를 兼併하여 이에 土運不及이 木運平氣之年으로 바뀌게 된다. 兼化平氣年은 己巳, 己亥, 辛丑, 辛未, 丁卯, 丁酉의 6년이 있다.”

張介賓은 『類經圖翼』에서 “如己運에 木司天하면 上角同正角이니 是以木兼土也오 辛運에 土司天하면 上宮同正宮이니 是以土兼水也오 丁運에 金司天하면 上商同正商이니 是以金兼木也라 하였다”<sup>21)</sup>.

上角同正角, 上宮同正宮, 上商同正商은 『素問-五常政大論』에 있는 말이다. 이를 平氣年으로 본 이유는 正角, 正宮, 正商 등의 말에 미혹되어 이를 평기라고 본 것 같다. 그러나 筆者의 입장에서 볼 때 이해는 결코 평기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土가 不及하여 木이 와서 兼化하여 正角의 상태를 이루었지만 本運인 土運이 억제를 받고 있는데 어찌 1년 동안 和平한 기운이 작용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丁卯年을 예로 들어보면 木이 不及하여 金이 와서 兼化하여 正商의 상태를 이루었지만 本運인 木運을 억제하여 봄에도 金기운이 작용하고 있는데 어찌 正商이라 하여 金平氣年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때의 正은 평기를 이룬다는 뜻이 아니라 政의 뜻으로 政事한다. 다스린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듯하다. 위 6년 중에서 辛丑, 辛未는 同歲會平氣에

속하고 丁卯는 歲會平氣에 속한다. 따라서 이 3년을 제외한 兼化平氣는 僞平氣年이며 假平氣年이라 사료된다. 이는 兼化의 해를 平氣年으로 추산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뜻이다.

## 9) 得政假平氣

이것도 『運氣學說의 研究與平述』과 『醫易時空學』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다. 『運氣學說의 研究與平述』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22)</sup>

“세운이 不及한 해에 마침 내가 이기는 司天之氣를 만나 세운이 본래 司天之氣를 克制해야 하나 不及하여 도리어 司天之氣의 相侮를 받게 되면 司天之氣가 변하여 一歲氣化의 주인이 되어 세운을 대신해서 政令을 行하니 이로부터 司天之氣가 化生하는 기운이 평기를 이루게 된다. 예를 들어 乙巳, 乙亥年은 세운이 金運不及이고 巳亥厥陰風木이 司天하니 靑淸풍목이 도리어 세운을 侮克하여 세운의 政事를 대항하니 따라서 金運不及之年이 변해서 木運平氣之年이 된다. 得政平氣年은 乙巳 乙亥 丁丑 丁未 癸卯 癸酉의 6년이 있다.”

乙巳, 乙亥는 司天之木이 不及한 金運을 侮(木侮金)하여 木得其政하는 것이니 上角同正角이고, 丁丑, 丁未는 司天之土가 不及한 木運을 侮(土侮木)하여 土得其政하는 것이니 上宮同正宮이고, 癸卯, 癸酉는 司天之金이 不及한 火運을 侮(金侮火)하여 金得其政하는 것이니 上商同正商이 된다. 이 중 癸卯, 癸酉는 同歲會平氣가 된다. 得政의 해가 平氣가 된다는 주장은 내경에 있는 正角, 正宮, 正商 등의 正字에 미혹되어 이를 평기에 포함시켰으나 兼化平氣條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本運이 기화를 잃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평기년이 아닌 僞平氣年, 假平氣年이라 사료된다.

## 10) 요약 및 정리

위에서 설명한 내용 중 筆者가 확실하게 평기년

20) 刑玉瑞. 運氣學說의 研究與評述.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0. p.168.

21)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p.50.

22) 刑玉瑞. 運氣學說의 研究與平述.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0. pp.167-168.

Table 1. Normal Qi Years Table

甲子		甲午	
乙丑	순화평기	乙未	순화평기
丙寅		丙申	
丁卯	세회평기, 동속평기	丁酉	
戊辰	제화평기	戊戌	제화평기
己巳		己亥	
庚午	제화평기	庚子	제화평기
辛未	동세회평기	辛丑	동세회평기
壬申		壬寅	
癸酉	동세회평기	癸卯	동세회평기
甲戌		甲辰	
乙亥		乙巳	
丙子		丙午	
丁丑		丁未	
戊寅		戊申	
己卯		己酉	
庚辰		庚戌	
辛巳		辛亥	
壬午		壬子	
癸未		癸丑	
甲申		甲寅	
乙酉	세회평기, 동화평기	乙卯	동화평기
丙戌		丙辰	
丁亥	동화평기	丁巳	동화평기
戊子		戊午	
己丑	세회평기, 동화평기	己未	세회평기, 동화평기
庚寅	제화평기	庚申	제화평기
辛卯	순화평기	辛酉	순화평기
壬辰		壬戌	
癸巳	동세회평기, 순화평기	癸亥	동세회평기, 순화평기

이 된다고 분석한 歲會中 4년, 齊化平氣 6년, 同化平氣 6년, 同歲會平氣 6년, 順化平氣 6년, 同屬平氣 1년을 가지고 도표를 만들면 Table 1.과 같다.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앞의 평기년을 모두 합하면 29년이 되나 歲會平氣 4년은 同化平氣 3년, 同屬平氣 1년과 중복되고 順化平氣 중에서 癸巳, 癸亥는 同歲會平氣와 중복됨으로 正平氣年, 眞平氣年

에 속하는 해는 모두 23년이 됨을 알 수 있다.

이 중 運太過而被抑하여 平氣가 되는 해는 齊化平氣에 해당하는 6년이 있고 나머지 17년은 모두 運不及而得助하여 平氣가 된다. 이를 五運으로 나누어 보면

木平氣에 해당하는 數和의 해는 丁卯, 丁亥, 丁巳의 3년이 있고

火平氣에 해당하는 升明의 해는 戊辰, 戊戌, 癸

酉, 癸卯, 癸巳, 癸亥의 6년이 있고

土平氣에 해당하는 備化의 해는 己丑, 己未의 2년이 있고

金平氣에 해당하는 審平의 해는 乙丑, 乙未, 庚午, 庚子, 乙酉, 乙卯, 庚寅, 庚申의 8년이 있고

水平氣에 해당하는 靜順의 해는 辛未, 辛丑, 辛卯, 辛酉의 4년이 있다.

中國의 여러 학자들도 平氣年에 대해서 많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참고로 方葯中이 「五常政大論」注解에서 주장한 平氣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3)</sup>.

數和之紀에 속하는 해에는 丁亥, 丁巳의 2년이 있다.

升明之紀에 속하는 해에는 戊辰, 戊戌, 癸巳, 癸亥의 4년이 있다.

備化之紀에 속하는 해에는 己丑, 己未의 2년이 있다.

審平之紀에 속하는 해에는 乙卯, 乙酉, 庚午, 庚寅, 庚子, 庚申의 6년이 있다.

靜順之紀에 속하는 해에는 辛亥의 1년이 있다.

방약중이 주장한 평기년은 모두 15년이다.

筆者가 위에서 23년이라고 주장한 것은 역대의 주장을 참고하여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열거한 것이다. 기후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고정된 이론에만 집착해서는 안 될 것이다. 中運과 司天之氣, 在泉之氣, 干德符 더 나아가서는 運과 氣의 相生, 相克관계까지를 종합하고 이를 기후변화에 직접 대조해 보아야만 비로소 만족한 결과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張介賓은 이에 대해 “司天既有臨遇면 在泉豈無臨遇며 天地既有臨遇면 六步豈無臨遇리오 玄理無窮이나 一隅三反이니 貴在因機推測也니라(사천기운이 이미 下臨함이 있다면 재천기운이 어찌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사천, 재천이 이미 관여해서 작용한다면 6步가 어찌 관여하지 않으리오. 깊은 이치가 무궁무진하니 하나를 알면 3개를 깨우칠 것이니 기틀로 인해 추측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였다.

23) 方葯中, 許家松.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p.155-165.

### 3. 結 論

평기년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歲會年中 平氣에 해당되는 해는 丁卯, 己丑, 己未, 乙酉의 4년이고 甲辰, 甲戌, 丙子, 戊午年은 평기가 아니다.

2. 齊化平氣에 해당되는 해에는 戊辰, 戊戌, 庚寅, 庚申, 庚子, 庚午의 6년이 있다.

3. 同化平氣에 해당되는 해에는 丁巳, 丁亥, 己丑, 己未, 乙卯, 乙酉의 6년이 있는데 己丑, 己未, 乙酉의 3년은 세회평기년과 중복된다.

4. 同歲會平氣에 해당되는 해에는 癸巳, 癸亥, 癸卯, 癸酉, 辛丑, 辛未의 6년이 있다.

5. 順化平氣에 해당되는 해에는 癸巳, 癸亥, 乙丑, 乙未, 辛卯, 辛酉의 6년이 있는데 이 중 癸巳, 癸亥는 동세회평기와 중복된다.

6. 歲會 4년, 齊化 6년, 同化 6년, 同歲會 6년, 順化 6년, 同屬平氣 1년은 正平氣年이며 眞平氣年이라 볼 수 있으며 중복된 것을 빼면 모두 23년이 된다.

7. 干德符에서 月干德符에 해당되는 해는 丁丑, 丁卯, 丁巳, 丁未, 丁酉, 丁亥의 6丁年이 있고 日干德符는 매해 大寒日의 日辰을 참고해야만 하며 時干德符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干德符의 해가 平氣가 된다는 것은 참고는 하되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

8. 類歲會年은 假平氣年임으로 平氣를 추산해서는 안된다고 사료된다.

9. 兼化年, 得政年도 역시 平氣를 추산해서는 안되니 이 해들은 僞平氣年이며 假平氣年이다.

10. 평기년의 파악은 기존에 열거한 것을 참고하되 엮매이지 말고 中運, 司天, 在泉, 運과 氣의 상생 상극 관계 등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파악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16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No.201601500001).

## References

1. SM Mo, GD Baek. Uiyeksigonghak. Taiyuan. Shanxi Science Technology Publisher. 2007.  
毛小妹, 白貴敦. 醫易時空學.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07.
2. YJ Bang, GS Huh. Hwangjenaegyong Somunungichilpyeonganghae. Beijing. Renminweisheng publisher. 1984.  
方葯中, 許家松.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3. R Yang. Junguiungihak. Beijing. Beijing Science Technology Publisher. 1995.  
楊力. 中醫運氣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5.
4. GC Yeom. Ungiseopyo. Taiyuan. Shanxi Science Technology Publisher. 2015.  
閻鈞天. 運氣攝要.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5.
5. G Oh. Sajinungishimbeopyogyol. Beijing. China Medico Pharmaceutical Science & Technology Publisher. 2012.  
吳謙. 四診運氣心法要訣.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12.
6. OS Yu original work. RP Chang ed.. Somunungirono. Beijing. Hakwon publisher. 2008.  
劉溫舒 著. 張立平 校注. 素問運氣論奧. 北京. 學苑出版社. 2008.
7. OS Yu original work. CY Yun ed.. Hyeontojuhae Somunipsikungirono. Daejeo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007.  
劉溫舒 著. 尹暢烈 譯. 懸吐注解素問入式運氣論奧. 大田. 韓의학연구원. 2007.
8. CY Yun, NG Lee, SH Kim trans.. Hyeontowanyeok Hwangjenaegyong somun Wangbingju (ha). Daejeon. Jumin publisher. 2004.  
尹暢烈, 李南九, 金善鎬 懸吐解釋. 현토완역 황제내경소문 왕빙주(下). 大田. 주민출판사. 2004.
9. EC Lym original work. JH Lym ed.. Lymeungchuungihakseolyukgang. Beijing. Zhongguozhongyiyao publisher. 2014.  
任應秋 著. 任廷革 整理. 任應秋運氣學說六講.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4.
10. GB Chang. Yugyeongdolk. Seoul. Seongbosa. 1982.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11. OS Hyeong. Ungihakseoljeokyeonguyepyeongso. Beijing. Renminweisheng publisher. 2010.  
刑玉瑞. 運氣學說的研究與評述.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0.
12. YG Do. Trial discussion on Prediction of Normal circuit qi. Journal of Anhui traditional Chinese medical college. 1984. 4.  
陶有寬. 試談平氣的預測. 安徽中醫學院學報. 1984. 4.
13. H Cho. Estimating Methods and Meaning of Years on Normal circuit qi. Journal of Anhui traditional Chinese medical college. 2000. 19(6).  
趙輝. 平氣之年推算方法及其意義. 安徽中醫學院學報. 2000. 19(6).
14. OS Hyeong. The discussion on the

Scientific characteristic of Theory of five circuits and six qi through the Estimation of Normal circuit qi. Liaoning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09. 36(11).

刑玉瑞. 從平氣推算看運氣學說的科學性問題. 遼寧中醫學院. 2009. 36(11).